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10)

여름 무더위에 일본 선교의 동역자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기도와 사랑과 후원으로 저희 가정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날씨도 많이 덥지요. 일본도 한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 여름은 고온다습한 날씨이기에 낮에도 덥지만, 저녁에도 열대야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매일 열사병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의 여름 사역은 무더위에도 계속 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리타중앙교회 여름 사역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름유스캠프와 일본 학생들이 한국에 가는 일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일어나서 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감동이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1. 일본은 지금.

- 지난 7월 5일에는 난카이(남해) 대지진이 예언된 날이었습니다. 타츠키 료라는 만화가, 예언가, 소설가가 “내가 본 미래”라는 제목의 책에서 2025년 7월에 난카이 대지진을 예언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소동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언을 시작으로 여러 유튜브가 만들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특히 외국 관광객에게 영향을 주었고, 일본에 관광 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에 관광객 감소를 가져 왔습니다. 특히 홍콩, 중국 일부에서는 난카이 대지진 예언으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항공 노선이 멈추는 등의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일상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당부했고, 늘 지진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대비하는 유비무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20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당 연합인 자민당, 공명당이 과반 125에 실패했고, 122대 126으로 야당이 약진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쌀값 상승 하나만 보아도, 일본 여당의 무능을 실감하게 됩니다. 코로나 전에 5키로가 2천엔 정도였는데, 2배가 올라서 4천엔이 되었습니다. 한달 전부터 비축미(정부미)를 2천엔 정도로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사퇴설이 나오고 있어서, 여당 자민당이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 7월 30일 오전 8시 25분경에 러시아 캅카차반도에서 8.7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큰 영향을 받았고,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가 일본 열도의 태평양 해안 쪽으로 길게 발령이 되었습니다. 태평양의 하와이까지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 되었는데, 한국은 일본이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어서, 쓰나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 나리타중앙교회

- 나리타중앙교회 앞에 개교한 엘리트스카이 일본어학교의 첫 입학식이 5월 8일에 있었습니다. 네팔과 미얀마 학생이 대부분인 엘리트스카이 일본어학교는 동경 신주쿠에 본교가 크게 있고, 나리타공항 근처에 일본어학교를 지점처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엘리트스카이 일본어학교를 통해서 먼나라에서 고국을 떠나 유학온 학생들이 일본 대학의 꿈과 비전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 구원을 위해서 나리타중앙교회에게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 지난 6월 23일-26일까지 원주청년관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이 리트릿으로 일본을 오셨습니다. 좋은 교재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감사했습니다.
- 8월 13일-14일 제4회 여름유스캠프를 우리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꿈의교회 청년들의 헌신과 준비로 이번에도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대략 16명의 학생들이 참석하고, 꿈의교회 청년들이 준비한 찬양, 위식, 연극 등을 함께 하면서, 내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매년 참석하는 학생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여름유스캠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꿈의교회 단기선교팀의 기도와 수고와 땀과 눈물이 열매가 되어 거둘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한 것은 여름유스캠프가 끝나고 8월 17일-20일까지 드디어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요즘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일본에서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어 신청한 7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에 갑니다. 꿈의교회 청년들과 예배도 드리고, 홈스테이도 하고, 놀이 공원도 가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으면서, 안산과 서울에서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모든 일정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 모양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이 일정을 잘 마치고,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내년에는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영적 분위기를 체험하고, 한국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3. 가정이야기

- 일본목회자 세미나가 5월 26일-27일까지 동경에서 이동휘목사님, 한도수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렸습니다. 9년만에 열리는 세미나에 일본 목사님과 한국 목사님들이 참석해서 선교에 대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원로하시지만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동휘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은채가 대학생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러 수련회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월 20일 일본 집에 왔습니다. 1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중물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인천 송도 기숙사에서 가까운 마중물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MK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방학을 보내고, 8월 17일 한국에 가서 일본 학생들과 한국 일정을 보내고, 2학기 개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은채의 필요한 2학기 등록금도 모두 채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년 가을과 겨울에 1학년 2학기까지 인천 송도 국제캠퍼스 생활을 잘 마치고, 2학년부터는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좋은 스승과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나서 꿈과 비전을 잘 준비하는 은채가 되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

1.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교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2. 나리타중앙교회의 영적, 숫적 부흥을 주옵소서.
3. 엘리트스카이 일본어학교 학생들(네팔, 미얀마)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4. 8월에 한국에 다녀온 학생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게 하옵소서.
5. 바울선교회 일본지부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6. 각 선교사대회(9월:태국, 10월:일본)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마무리 되게 하옵소서.

7. 어머니(이춘자권사)의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8. 은채가 1학년 2 학기에도 학교와 기숙사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옵소서.
9.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2025 년 8 월 4 일 일본 김태호, 박윤희, 은채 선교사 올림
kth0712@hanmail.net, 인 070-7428-9764, 81-80-5096-9764



{5 월 8 일 엘리트스카이 일본어학교 입학식}



{일본 목회자세미나 마치고, 나리타공항에서}

{어린이축복식}



{원주청년관 이사님들 나리타중앙교회 방문}

{7 월 30 일 캄차카반도 대지진 이후 쓰나미 발령}